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윤호주(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제 13대 이사장)

2019년 기해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2018-2019) 학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열정적 학술활동에 힘입어 제 13대 집행부가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임 집행부를 이끄는 이사장으로서 포부를 밝힌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몇 가지 각오를 피력한 부분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학회에서 있었던 주요 사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의 얼굴인 AAIR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창간 당시 박춘식 교수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SCI-E에 등재되고, 최근에는 2018년 인용지수 5.026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 편집장이신 박해심 교수님과 편집위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2019년 11월 16일에는 창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민양기 교수님, 박춘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국제학술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전임 조상헌 이사장님 집행부에서 준비한 SERIN ASIA, EAAS, EAACI와 함께 2018년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EAACI와 KAAACI 사이에 MOU 체결과 함께 양 학회 간에 공식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학회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손명현 학술이사님, 장윤석 국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훌륭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유관학회와의 교류 확대입니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매년 개최한 Airway Symposium은 내용도 훌륭하고 양 학회 간의 소통과 교류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년간 외국 연자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의 격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도 질환의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함께 해 주신 장안수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학회 사무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2021년을 이끌어갈 집행부인 훌륭한 오재원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계셔서 학회 발전에 더 큰 획을 그을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